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Characteristic of Interior Design Curriculums in Korea

Author 박찬일 Park, Chan-Il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교수

Abstract In order to discuss identity of Interior Design as an academic study, I analyzed educational objectives and curriculums of Interior Design in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his end, I surveyed 83 colleges and categorized those colleges based on their school system and academic field where the college is included. First,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 I classified them into 2-, 3-, 4-year course. Then, I categorized each of them into subcategories based on their fields; 2 year course into Design field and Construction Engineering field, 3 year course into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Design, 4 year course into Design, Life Scienc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Referring to a Classified table of majors and fields by KIID, I reorganized them into ten big categories: ①Design Theory ②Design Technique ③Interior Composition Elements ④Basic Practice ⑤Advanced Practice ⑥Psychology and Behaviour ⑦Design Management ⑧History of Interior Design ⑨Digital Design ⑩Communication. The afore-mentioned ten curriculum categories show characteristics formed by composition in each school system. The curriculum categories in school system had differences in composition depending on each field. By exami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I concluded attributes of each field. I hop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consistent study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academic identity of Interior Design.

Keywords 실내디자인, 교과과정, 현황, 특성
Interior Design, Educational Programs, Current Condition, Characteristic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과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정하고 일정한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활동의 조직이기도 하다. 본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영어의 '커리큘럼(curriculum)'은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온 말로서 '달린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경마장의 경주로(race course)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정한 코스가 커리큘럼인 것이다. 교과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

이다. 즉 교과과정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이념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철학에 기초하여야 하며 사회의 상황과 적합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고려한 교육이념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디자인이라는 학문분야는 타 학문분야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 학문이다. 또한 인간의 생활환경(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관련분야와의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다양성은 때로는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학문으로서의 가치적 측면에서 문제제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융합과 통섭이 시대의 이슈로 주목받는 21세기에 이러한 논점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기도 하다.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은 실내디자인과 근접한 분야인 건축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건축학 인증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논의 속에

1) 한국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에서 일부 재인용

서 건축학교육인증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²⁾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으나 현재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CIDA(Council for Interior Design Accreditation)와 NCIDQ(National Council for Interior Design Qualification)의 예나 한국의 건축학 교육인증과 건축사자격제도의 예가 그러하듯 자격제도와 연관되지 못하는 교육인증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실내디자인(건축)에 관한 사회적 제도적 정비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2년제 이상 대학의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의 입학정원 추정치는 2012년 현재 5,900여명³⁾에 이르며 이는 실내디자인학의 인접학문 분야인 건축학전공의 입학정원 추정치 8,200명⁴⁾과 비교하면 약 72%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 개설에 있어서 현재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인증제도와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개설율⁵⁾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적, 교육적으로 실내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보다 성숙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의 실내디자인의 교육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실내디자인의 학문적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가까운 장래의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상기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1년 5월 실내디자인학회 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실시한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분석, 고찰하여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실내디자인 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11년 5월에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회원명부에 기재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관한 조사’에 의한 것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교과과정의 개편주기, 학제, 소속 학부 또는 학과의 명칭, 이수학점과 수여 학위명, 입학시험에서의 실기시험여부 등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각 학년별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 주당 시수, 전공과 교양, 필수와 선택의 여부를 묻는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내용으로 전체 조사표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 조사표⁶⁾는 총 88개교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조사내용을 학제와 계열 별로 구분⁷⁾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학제와 계열이 갖는 교육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기준이 교과과정의 구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분석은 계열별 교과목을 모두 나열하고 교과가 개설된 학교의 수를 집계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에서의 과목 분류는 각각의 학교별로 서로 다른 과목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전공 및 분야 분류표를 참고로 하여 공통의 과목 분류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론과 실기의 구분은 조사표의 회답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회답이 미비한 설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서 얻은 정보와 본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디자인이론(계획론, 방법론, 공간론, 개론) ②디자인기술(구조 및 설비, 시공 및 적산, 법규 및 제도) ③실내구성요소(가구, 색채, 재료, 조명, 실내장식) ④기초실기(조형, 제도, 사진, 표현기법) ⑤전공실기(설계, 모형) ⑥심리 및 행태(인간공학, 환경심리 및 행태) ⑦디자인경영 ⑧실내디자인역사(실내디자인사, 한국디자인사, 미술사) ⑨디지털디자인(CAD, 3D, 그래픽, 디지털디자인) ⑩커뮤니케이션(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및 워크숍). 단 이와 같은 분류는 과목명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기에 실제 과목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 조사 대상 대학의 교과과정 개요

본 조사에서는 학제를 2년제, 3년제, 4년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제별 유효 회답은 4년제 대학이 46개교, 3년제 대학이 18개교, 2년제 대학이 24개교로 총 88개교이다.

2.1. 2년제 대학의 전공학점 및 실기시험 실시율

2년제 대학의 경우 각 계열별 총학점의 평균과 전공학

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2006년 첫 인증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 현재까지 전국의 73개 5년제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중 40개 프로그램이 인증신청을 위한 인증후보자격이 승인되었고, 21개 프로그램(전문대학원 포함)이 인증을 부여 받고 있음.
3) 서수경의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의 2010학년도 관련학과 수와 모집정원(계열별 모집정원과 전공별 모집정원으로 구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전공별 모집정원이 불명확한 계열 및 학부 모집의 대학만을 대상으로 2012년 6월에 실시한 전화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추정치.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2011년 자료에 의한 추정치.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와 각 대학 홈페이지 조사에 의하면 석사과정 44개교, 박사과정 19개교가 개설되어있다. IDEC 및 각 대학 홈페이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는 석사과정 51개교, 박사과정 12개교로 인구수 대비 한국의 개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6) 조사내용에 대한 회답이 타 대학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내용적 충실도와 명확성 등의 일정 기준을 클리어한 조사표를 의미함.
7) 2년제의 경우 대부분이 디자인계열로 계열별 분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열의 구분 없이 전체적인 교과과정 분석에 중심을 두기로 함.

점의 평균을 보면 먼저 건축계열의 경우 1개 대학의 답변이기는 하나 84학점과 74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88%이다. 공학계열의 경우 86학점과 74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86%로 건축계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디자인계열의 경우 86학점과 67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78%로 타 계열에 비해 전공학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생활과학계열은 3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의 회답 대학 중에는 없었다. 입학시험(정시)에서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공학계열의 5개 대학 중 2개 대학으로 약 40%를 차지하여 3년제 공학계열 대학의 실시율과 차이를 보였다. 디자인계열에서는 18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실시하여 28%의 실시율을 보였다.

2.2. 3년제 대학의 전공학점 및 실기시험 실시율

3년제 대학의 경우 각 계열별 전체학점의 평균과 전공학점의 평균을 보면 먼저 건축계열의 경우 126학점과 102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81%이다. 공학계열의 경우 111학점과 91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82%로 건축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디자인계열은 123학점과 90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73%이었다. 본 조사의 회답 대학 중 3년제 대학의 경우 생활과학계열은 없었으며 디자인계열에 비하여 건축계열과 공학계열이 전체학점 대비 전공학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학시험(정시)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디자인계열의 15개 대학 중 2개 대학으로 약 13%로 나타났다.

2.3. 4년제 대학의 전공학점 및 실기시험 실시율

4년제 대학의 경우 각 계열별 전체학점의 평균과 전공학점의 평균을 보면 건축계열의 경우 135학점과 79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59%이다. 공학계열은 132학점과 82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62%이다. 디자인계열은 136학점과 68학점으로 전공학점 비율은 50%이었으며 생활과학계열은 135학점과 68학점으로 전공학점의 비율은 50%이었다. 전체학점 대비 전공학점이 가장 높은 계열은 공학계열이며 가장 낮은 계열은 디자인계열로 나타났다. 입학시험(정시)에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계열은 디자인계열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축계열이 57%로 높은 실시율을 보였고 생활과학계열 33%, 공학계열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계열에 따라 실내디자인의 교육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즉 입학 전에 디자인 또는 예술적 성향과 학습이 이루어진 신입생을 선호하는 디자인 계열과 전통적으로 이과적 성향과 특성이 강한 공학계열의 일반적인 차이라 할 수 있겠다.

3. 계열별 교과과정의 현황과 특성

3.1. 2년제 대학의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

<표 1> 2년제 대학 교과과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2년제			소 계	합계		
		이론	실기	이론 + 실기				
디자인이론	계획론	10	-	4	14	35 (7%)		
	공간론	2	-	-	2			
	방법론	10	1	3	14			
	개론	4	-	1	5			
디자인기술	구조 / 설비	8	-	3	11	37 (8%)		
	시공 / 적산	6	3	3	12			
	법 / 제도	4	-	-	4			
	재료	6	-	4	10			
실내구성 요소	가구		9	13	22	75 (15%)		
	색채 / 재료	2	4	13	19			
	조명	1	4	6	11			
	실내장식	3	6	14	23			
기초실기	조형	1	5	12	18	87 (18%)		
	제도	-	8	7	15			
	사진	-	-	3	3			
	표현기법	2	7	32	41			
전공실기	설계		19	59	78	86 (18%)		
	모형	1	4	3	8			
실리 및 행태	인간공학	6	-	1	7	9 (2%)		
	환경심리/행태	2	-	-	2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	7	1	1	9	9 (2%)		
실내디자인 역사	실내디자인사	6	-	-	6	6 (1%)		
	한국디자인사	-	-	-	-			
	미술사	-	-	-	-			
디지털 디자인	CAD	-	21	22	43	109 (22%)		
	3D	-	6	10	16			
	그래픽	2	7	19	28			
	디지털 디자인	4	5	13	22			
커뮤니케이션	포토폴리오	1	3	6	10	33 (7%)		
	프리젠테이션	-	2	-	2			
	세미나 워크샵	4	8	9	21			
전체개설 과목의 수					-	-	-	486

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조사표 회수 대학 중 2년제 대학의 계열은 크게 디자인 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로 나눌 수 있으나 전체 23개 회답 대학 중 건축 1개교, 공학 4개교에 그치고 있어 2년제 대학에서의 계열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열 구분 없이 전체적인 교과과정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표 1>

(1) 디자인이론

디자인이론과 관련한 과목으로는 기초디자인론, 공간형태표현과 같은 디자인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2과목과 인테리어 개론, 인테리어디자인론, 실내건축계획학과 같은 전공이론과목 24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특히 전공이론과목은 이론만이 아닌 실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과목도 4개 과목이 있어서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내공간론, 실내조형론, 디자인조사 등 5개 과목은 2학년 교과에 개설되어 있어 1학년의 기초이론에 비해 보다 실내디자인 영역에 특화된 이론과목의 개설과 개별연구와 디자인조사와 같은 보다 심화된 이론적 지식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자인조사

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으로 조사에 의해 얻어진 이론들을 실기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디자인기술

디자인기술과 관련한 디자인 재료 및 가공, 디자인 재료학과 같은 재료에 관련한 과목 9개 과목, 실내건축구조와 같은 구조와 관련한 과목 4개 과목, 법규와 설비에 관련한 과목 2개 과목이 1학년에 개설되어 있다. 특히 재료와 관련한 과목은 3개 과목이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고 있어 다른 기술 관련 과목과 달리 실제적인 디자인에서의 응용이 실기와 연계되어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내재료와 시공기법, 실내건축적산, 실내구조계획, 실내건축법규, 인테리어 환경 설비 및 시공, 시공실무 등의 22개 과목이 2학년에 개설되어 1학년의 개설 과목에 비해 보다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론과목이 12개 과목이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으로 7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3) 실내구성요소

실내구성요소 관련 과목은 전체 과목구성비 15%로 디지털디자인(22%) 및 실기과목(18%) 다음으로 높은 개설율을 보여 주요 전공과목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실내구성요소와 관련한 과목으로는 색채, 사인, 실내장식 및 의장, 가구 등과 관련한 28개 과목이 1학년에 개설되고 있다. 특히 색채와 관련한 과목이 1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 실내구성요소 중 색채 관련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내구성요소의 대부분의 과목이 실기과목이거나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고 있어 이론적인 틀과 실제적인 디자인이 연계되어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내구성요소 관련 과목 중 48개 과목은 2학년에 개설되고 있으며 1학년의 개설과목수에 비해 2배 가까운 개설과목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9개 과목)나 코디네이션 관련과목(6개 과목)과 같은 공간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1학년에서 색채 관련 과목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가구(15개 과목), 조명(11개 과목) 과목이 높은 비중을 갖는다. 과목의 성격으로는 학년과 관계없이 실기 또는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한다.

(4) 기초실기

기초실기와 관련한 과목으로는 기초디자인, 공간조형디자인, 입체디자인, 평면디자인, 기초드로잉 등과 관련한 84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과목의 성격 상 1학년에 집중되어 개설되고 있다. 또한 기초실기과목은 실기만이 아닌 이론과 함께 이루어지는 과목이 54개 과목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다. 기초조형이나, 기초제도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실습이 병행되는 형식의

과목들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5) 전공실기

전공실기와 관련한 과목으로는 실내디자인 입문, 주택디자인, 실내디자인일반, 유니버설디자인, 실내환경계획과 같은 전공실기과목은 27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그 중 18개 과목이 '이론+실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주거공간디자인이라는 과목명으로 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주거공간이 1학년 전공실기의 주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실기 관련과목은 2학년에서 그 수가 대폭 확대되어 총 75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테마도 전시시설디자인, 환경디자인, 상업공간디자인 등과 같이 다양해지며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스튜디오, 인테리어 실무와 같은 실무형 디자인실기 과목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편 전공실기 과목 중 53개 과목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공실기 수업이 단순한 실습을 위한 과목이기 보다 이론적 지식을 함께 전달하는 내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6) 심리 및 행태

심리 및 행태와 관련한 과목으로는 감성인간공학, 인간공학, 인테리어 인간공학 등이 있으며 총 6개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그 중 2개 과목이 '이론+실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개 과목은 이론 과목이다. 심리 및 행태에 관련한 과목은 실내건축환경, 실내환경론 등의 4개 과목으로 2학년에서 개설되고 있다. 1학년에서의 인간공학이나 감성 관련 과목과는 달리 실내공간을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성을 보인다.

(7) 디자인경영

디자인경영과 관련한 과목에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실무, 디자인기획 및 마케팅, 산학연구, 전공실무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모두 2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다. 디자인경영에 속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이론과목이나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과목과 같이 과목의 성격상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도 있다.

(8) 디자인역사

디자인역사와 관련한 과목은 디자인사, 현대디자인사, 실내디자인사와 같은 과목들로 총 4개 과목이 1학년에, 2개 과목은 2학년에 개설되어 있다. 2년제 대학에서의 디자인 역사와 관련한 과목들의 전체 과목구성비는 1%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디자인역사에 대한 과목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9) 디지털디자인

디지털디자인은 전체 과목구성비 22%로 타 전공과목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2년제 대학 전공교과과목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디지털그래픽, 디지털모델링, 3D MAX 1과 같이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 다양한 62개의 과목들이 1학년 과정에

개설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실기 또는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는 과목이며 이 중에는 컴퓨터응용디자인과 같은 이론과목도 있다. 디지털디자인 관련과목 중 47개 과목이 2학년에 개설되고 있어 1학년에 비해 개설과목은 줄어들지만 실무CAD, 컴퓨터응용디자인, 가상모델링실습 등과 같이 1학년에서 학습한 디지털디자인의 응용기술들을 중심으로 진보된 내용의 과목들이 개설됨을 알 수 있다.

(10)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과목은 현장실습 1개 과목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제작, 디자인워크숍, 디자인워크숍 실습 등 대부분의 과목(15개 과목)이 2학년 과정에 개설되어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과 실무에서의 적용을 위한 워크숍 형태의 조직적 디자인 활동에 대한 실습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관련과목의 특성은 15개 과목 중 8개 과목이 실기 과목으로 설정되어있고, 7개 과목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겠다.

3.2. 3년제 대학의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

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조사표 회수 대학 중 3년제 대학의 계열은 크게 디자인 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 구성은 전체 18개 회답 대학 중 건축 4개교, 공학 4개교, 디자인 10개교 이다. 3년제 대학에서의 건축과 공학은 계열분류는 되어있으나 교과구성, 취득학점 등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⁸⁾하여 본 절에서는 건축 및 공학계열을 하나로 묶어 디자인계열과의 교과과정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1) 디자인이론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디자인이론 과목 분류에서는 방법론과 개론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건축 및 공학계열의 경우는 계획론과 공간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과목구성에서 디자인이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디자인계열의 7%보다 높은 9%로 나타났다. 특히 방법론과 개론에 해당하는 과목 중에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형식의 수업구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계열이 계획론의 1과목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과목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디자인기술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디자인기술과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재료에 해당하는 과목 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공 및 적산(9과목)으로 나타났으며 법과 제도(2과목)에 관한 과목분

8) 공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4개 대학의 전공명이 실내건축디자인, 실내건축전공 등으로 명기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2> 3년제 대학 교과과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3년제		합 계
		디자인계열	건축 및 공학계열	
디자인이론	계획론	5	9	14
	공간론	3	7	10
	방법론	7	8	15
	개론	9	3	12
	소계	24(8%)	27(9%)	51(9%)
디자인기술	구조 / 설비	7	7	14
	시공 / 적산	9	15	24
	법 / 제도	2	7	9
	재료	12	2	14
	소계	30(10%)	31(10%)	61(10%)
실내구성요소	가구	16	11	27
	색채 / 재료	11	11	22
	조명	13	7	20
	실내장식	15	9	24
	소계	55(19%)	38(13%)	93(16%)
기초실기	조형	0	8	8
	제도	19	19	38
	사진	6	1	7
	표현기법	15	16	31
	소계	40(14%)	44(15%)	84(14%)
전공실기	설계	52	44	96
	모형	0	5	5
	소계	52(18%)	49(16%)	113(19%)
심리 및 행태	인간공학	8	4	12
	환경심리/행태	2	5	7
	소계	10(3%)	9(3%)	19(3%)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	7	9	16
	소계	7(2%)	9(3%)	16(2%)
실내디자인역사	실내디자인사	12	9	21
	한국디자인사	5	11	16
	미술사	0	0	0
	소계	17(6%)	20(7%)	37(6%)
디지털 디자인	CAD	21	21	42
	3D	2	2	4
	그래픽	14	2	16
	디지털 디자인	20	21	41
	소계	57(19%)	46(15%)	103(17%)
커뮤니케이션	포트폴리오	7	6	13
	프레젠테이션	7	4	11
	세미나/워크샵	10	16	26
	소계	24(8%)	26(9%)	50(8%)
개별별 개설 과목의 합		296	299	595

류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반대로 재료에 관한 과목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시공 및 적산 관련과목 구성이 48%(15과목)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법과 제도 관련 과목(5과목)도 디자인계열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기술에 관련한 교과구성의 차이는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의 교과목표에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디자인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이 1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실내구성요소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실내구성요소와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가구에 해당하는 과목(16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내장식 관련과목(15과목)과 조명 과목(13과목)으로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각 과목간의 차이는 미비하였다. 건축 및 공학계열도 가수와 관련한 과목과 색채 및 재료에 관한 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조명 관련 과목(7과목)과 실내장식 관련과목(9과목)이 디자인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내구성요소에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내장식이나 조명과 같은 부분에서의 차이를 통하여 양 계열의 교과목표에 차이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실내구성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이 19%, 건축 및 공학계열이 13%로 디자인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4) 기초실기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기초실기와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제도에 해당하는 과목(19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표현기법 관련과목(15과목)과 사진 과목(6과목)으로 나타났으며 조형과 관련한 과목은 개설되고 있지 않았다. 건축 및 공학계열도 제도와 관련한 과목(19과목)과 표현기법에 관한 과목(16과목)의 개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디자인계열에서는 개설되지 않았던 조형 관련 과목이 8과목 개설되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진 과목은 1과목만이 개설되어 디자인계열의 6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실기에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형이나 사진과 같은 교과구성에서의 차이를 통하여 양 계열의 교과목표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기초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이 14%, 건축 및 공학계열이 15%로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5) 전공실기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전공실기와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52개의 설계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으며 모형에 관련한 과목은 없었다. 한편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설계 과목 44과목, 모형과목 5과목으로 디자인계열과 달리 모형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실기에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형과 같은 교과구성에서의 차이를 통하여 양 계열의 교과목표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전공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이 18%, 건축 및 공학계열이 16%로 디자인계열이 약간 높게 나타나 기초실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디자인계열이 전공실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심리 및 행태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심리 및 행태와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8개의 인간공학 관련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으며 환경심리와 행태에 관련한 과목은 2과목으로 상대적

으로 적었다. 한편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인간공학 관련과목이 4과목, 환경심리와 행태에 관련한 과목은 5과목으로 심리 및 행태에 관한 양 계열의 교과구성이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 및 행태에 관련해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은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환경심리와 인간의 행태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심리 및 행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 모두 약 3%로 타 전공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7) 디자인경영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디자인경영에 관련한 과목은 7개의 디자인경영 관련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으며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9과목의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디자인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 2%, 건축 및 공학계열 3%로 타 전공과목들에 비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 디자인역사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디자인역사와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실내디자인사 12과목, 한국디자인사 5과목이었고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실내디자인사 9과목, 한국디자인사 11과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자인역사와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건축 및 공학계열이 디자인계열에 비해 한국디자인사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디자인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 6%, 건축 및 공학계열 7%로 타 전공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9) 디지털디자인

3년제 대학에 있어서도 디지털디자인 관련과목들이 가장 많은 개설율을 보이고 있어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자인계열의 디지털디자인과 관련한 과목분류에서는 CAD 과목(21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디자인 관련과목(20과목)으로 실제적으로 디지털 툴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과목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CAD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3D 툴을 가르치는 과목(2과목)은 적게 나타났다.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는 CAD 과목(21과목)과 디지털디자인 관련과목(21과목)이 동일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D 툴을 가르치는 과목(2과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 계열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래픽 과목에서는 건축 및 공학계열이 2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반하여 디자인계열은 14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디지털디자인과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이 건축 및 공학계열에 비해 그래픽디자인에 두는 비중이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커뮤니케이션

3년제 대학 디자인계열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과목 분류에서는 세미나와 워크샵 과목(10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 관련과목과 포트폴리오 관련과목이 7과목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축 및 공학계열에서도 세미나와 워크샵 과목(16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포트폴리오(6과목)와 프레젠테이션(4과목) 순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교과구성에서는 디자인계열과 건축 및 공학계열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체 과목구성에서 디지털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디자인계열이 8%, 건축 및 공학계열이 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4년제 대학의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

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조사표 회수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모두 46개교이며 크게 디자인계열, 건축계열, 공학계열 그리고 생활과학계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계열들은 2,3년제의 경우와는 달리 공학계열과 건축계열이 구분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생활과학계열이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디자인계열과 생활과학계열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앞의 분석에서 공학계열과 건축계열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석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도 공학과 건축을 건축·공학계열로 통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계열 구성은 전체 46개 대학 중 디자인계열 25개교, 건축·공학계열 9개교 그리고 생활과학계열 12개교 이다.

분류의 기준에 있어서는 계열과 학과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의 54%를 점유하는 디자인계열은 디자인대학, 조형대학, 문화예술대학, 미술대학, 예체능대학 등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26%를 구성하는 생활과학계열은 생활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계열의 차이가 명확하다 할 수 있다.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는 공학계열은 대부분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거나 일부 건축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 각 계열에 따른 교과과정은 <표 3>과 같다.⁹⁾

(1) 디자인이론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이론은 생활과학계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열 내 330개의 개설과목 중 80개의 강좌(26%)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개론 과목이 33개로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계획론 24과목, 방법론 21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구체적인 과목들로는 개론에서 주거학, 주거환경학, 주거의 이해 등의 강좌가 있으며, 계획론에서는 주택계획, 주거시설 디자인 등, 방법론에서는 14개의 주거관련 강좌

<표 3> 4년제 대학 교과과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4년제						전체 계열	
		디자인계열 (25개교)		건축·공학 계열(9개교)		생활과학계열 (12개교)		강좌수	전체 비중
		강좌수	계열내 비중	강좌수	계열내 비중	강좌수	계열내 비중		
디자인 이론	계획론	30		7		24		61	
	공간론	17		9		2		28	
	방법론	26		7		21		54	
	개론	25		21		33		79	
	기타(교 육/특목)	(7)		(4)		(34)		(45)	
	소계	98 (+7)	9%	44 (+4)	10%	80 (+34)	26%	222 (+45)	13%
디자인 기술	구조 / 설비	20		30		8		58	
	시공 / 적산	11		17		5		33	
	법 / 제도	(5)		7		4		11	
	재료	11		7		5		23	
	소계	42	4%	61	14%	22	7%	125	7%
실내 구성 요소	가구	55		7		17		79	
	색채 / 재료	33		11		9		53	
	조명	27		9		6		42	
	실내장식	32		6		2		40	
	소계	147	14%	33	7%	34	11%	214	13%
기초 실기	조형	56		29		14		99	
	제도	19		15		10		44	
	사진	3		1		2		6	
	표현기법	51		15		5		71	
	소계	129	13%	60	14%	31	10%	220	12%
전공 실기	설계	247		85		50		382	
	모형	4		(3)		0		4	
	소계	251	25%	85(3)	30%	50	16%	386	22%
심리 및 행태	인간공학	9		8		4		21	
	환경심리 /행태	5		14		5		24	
	소계	14	1%	22	5%	9	3%	45	2%
디자인 경영	마케팅	10		2		2		14	
	실무	11		10		5		26	
	매니지먼트	4		4		5		13	
	현장실습 /인턴십	12		8		8		28	
	소계	37	3%	24	5%	20	6%	91	5%
실내 디자인 역사	실내디 자인사	30		13		14		57	
	한국디 자인사	8		7		4		19	
	미술사	2		0		4		6	
	소계	40	4%	20	4%	22	7%	82	4%
디지털 디자인	CAD	44		23		16		83	
	3D	28		4		1		33	
	그래픽	21		9		0		30	
	디지털 디자인	61		7		6		74	
	소계	154	15%	43	10%	23	7%	220	12%
커뮤 니케 이션	포트 폴리오	13		4		3		20	
	프레 젠테 이션	12		4		1		17	
	세미나/ 워크샵	46		17		5		68	
	소계	71	7%	25	6%	9	3%	105	6%
	계열별 개설 과목의 합	/983 (+7)	100%	417 (7)	100%	300 (+34)	100%	1700 (+45)	100%

9) 표의 내용 중 괄호()안의 숫자는 교직과목 또는 실내디자인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강좌수를 의미한다.

가 개설되어 있다. 반면 공간론 부분은 2개 강좌만 개설되어 있어 본 계열이 추구하는 교과과정의 목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3개의 계열들에서 디자인이론은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디자인 계열의 디자인이론 과목은 계열 내의 비율이 9%로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분류상에서는 계획론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체 98개의 디자인 이론 강좌 가운데 30개가 개설되어 있다. 방법론과 개론 부분은 25개 내외의 강좌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건축·공학계열의 디자인이론은 10%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계열 내 비중으로는 개론 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다른 계열들에 비해 공간론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목들을 살펴보면 실내건축비평, 현대실내건축론 등 공간비평과 관련한 수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디자인이론에 속하는 교과목들은 그 특성상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분류를 통한 구체적인 교과목의 구성 편차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은 각 계열별 교육목적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디자인 기술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기술은 과목구성에 있어 계열 간 편차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건축·공학계열에서의 계열내 비중은 전체 417강좌 가운데 61개가 개설(14%)되어 있으며, 생활과학계열의 7%, 디자인계열의 4%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공학계열의 세부과목들을 통하여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공학, 적산학, 구조학, 재료학 등의 과목들로 보다 전문성을 띠는 단일 항목으로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제도 과목 부분은 전체 계열의 11개 강좌가운데 7개의 강좌가 단독으로 개설되어 있어 법규에 관련한 과목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디자인계열에서의 디자인기술 부분은 계열 내에서 비교적 적은 비중(7%)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제도 관련 내용을 독립된 단일과목 보다는 ‘구조와 법규’, ‘환경설비와 법규’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건축·공학계열과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실내구성요소

4년제 대학에서 실내구성요소는 가구, 색채/재료, 조명, 실내장식 관련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목구성에 있어서 계열 간 편차가 두드러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계열은 타 계열들에 비해 계열내 실내구성요소의 비중이 가장 높은 14%를 보이고 있다. 중분류 항목에서는 가구 관련 과목들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나머지

과목들도 고른 분포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디자인 계열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관련한 과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축·공학계열은 실내구성요소에 대한 계열내 비중이 7%로 디자인계열과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분류 항목에서도 가구와 실내장식에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적지 않아 공학계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과학 계열에서의 실내구성요소의 비중은 11%로 계열내에서 개설된 34개의 강좌가운데는 가구관련 과목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실내장식과목은 2개가 개설되어 있는 등 과목간의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내구성요소부문의 전체 214강좌 가운데 디자인계열이 147강좌(69%)를 개설하고 있어 학교 수에 따른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타계열과 구분되는 디자인계열만의 과목구성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디자인계열과 타계열간의 전공에 대한 교육목표의 차이와 계열별 특성을 드러내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4) 기초실기

4년제 대학에서 기초실기 관련 과목들은 전공과목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과목들로서 구성되어 기초 조형관련 과목이 절반을 이루고 있으며 제도와 표현기법이 나머지 절반을 이루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사진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모든 계열에서 10%를 넘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계열 구분 없이 조형과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타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자인계열에서는 표현기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결과물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디자인 계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 전공실기

4년제 대학에서 전공실기 관련 부문은 설계디자인 스튜디오 수업과 모형제작 과목들이 해당된다. 특히 계열 전체에 총 386개(22%)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최다 개설강좌 일 뿐 아니라 과목들의 특성상 실내디자인 전공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디자인계열에서의 전공실기는 계열내 비중이 25%에 해당하며, 계열간 비교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계수업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형제작 관련 과목에 있어서는 전체계열 가운데 디자인계열이 유일하게 전공 영역에 단독과목으로 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건축·공학 계열에서의 전공실기 과목 역시 계열 내에서 가장 높은 20%의 비중을 보이며 설계스튜디오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과학계열에서의 전공실기는 타계열들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6%의 계열내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설된 50강좌 중 16개의 강좌가 주거관련 공간디자인 과목에 집중하고 있어 생활과학 계열의 계열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 심리 및 행태

4년제 대학에서 심리 및 행태 관련 과목은 인간공학관련 과목과 환경심리 및 행태 관련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개설과목의 수가 37개에 불과하여 전체 계열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디자인계열의 심리 및 행태 부문은 계열내 비중이 가장 낮은 1%를 나타내며 이것은 계열간 비교에서도 가장 낮다. 반면 건축·공학계열에서는 계열내 비중이 5%로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간공학 및 환경심리/행태 관련 과목이 반드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은 디자인에 대한 접근에서도 건축·공학계열의 이과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과학계열은 3% 내외의 비중으로 약 1/3정도의 학교에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디자인 경영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경영 과목들은 마케팅, 실무, 매지니먼트, 현장실습 및 인턴쉽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 5%의 비교적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와 현장실습 및 인턴쉽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강좌 개설조차 미비한 편으로, 특히 매지니먼트 과목의 경우는 디자인 경영 관련과목 91개 강좌 가운데 13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 계열별 특성으로는 디자인계열이 계열내 비중 3%로 가장 낮으며 타 계열은 5-6%대로 유사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8) 실내디자인역사

4년제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역사 과목은 전체계열에 82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실내디자인사가 57개, 한국디자인사가 19개 그리고 미술사 관련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디자인역사 관련 과목의 개설은 주로 서양디자인사를 다루는 실내디자인사 과목이 각 학교당 1개 강좌 이상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디자인사는 디자인계열이 32%, 공학계열 40%, 생활과학계열 58%가 과목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전통디자인에 대한 교육은 디자인계열이 타 계열에 비해 개설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건축·공학계열은 실내디자인역사 관련 과목이 모든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어 공학계열에서 역사이론 관련 과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디지털디자인

4년제 대학에서의 디지털디자인 교육은 2-3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실기 과목과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전체 220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 CAD과목이 83개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3D와 그래픽 과목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디자인계열에서의 디지털디자인교육은 계열내 15%를 차지하여 다른 계열들에서 보다 비중이 크다. 특히, 세부적인 과목의 개설 비중에 있어 CAD과목(29%)보다

CAD와 3D 등의 톨을 디자인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디자인과목(4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디자인계열의 특징적인 교과구성을 보인다. 한편 생활과학계열에서는 계열내 비중이 7%로 계열간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CAD과목 이외에 다른 디지털 과목들의 개설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생활과학계열에서는 디지털디자인에 대한 중요도가 타계열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건축·공학계열 역시 CAD과목(53%)의 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디자인계열과 차이를 보인다.

(10) 커뮤니케이션

4년제 대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관련한 항목은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및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05개의 강좌가운데 세미나 및 워크샵 관련 항목이 68개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레젠테이션은 17개의 과목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계열별 특성을 살펴보면 디자인계열에서 계열내 비중이 7%로 가장 높았으며 과목들은 세미나 또는 워크샵 형태가 많았다. 건축·공학계열도 유사한 과목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생활과학계열은 계열내 과목 비중이 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프레젠테이션 과목이 전체 17개의 프레젠테이션 강좌가운데 단 1개의 강좌만이 개설되어 있어 타 계열과 큰 차이를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세계화라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실내디자인이라는 학문분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대학교육시스템의 전공과정으로서 향후의 실내디자인 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 교육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된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전공)의 교과과정 내용과 그 특성을 조사,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제별 총학점 대비 전공과목의 비율에 있어서는 2년제는 계열간 편차가 거의 없이 84.2%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년제 역시 3%의 계열간 편차로 평균 77.3%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4년제의 경우는 계열간 편차가 11%로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는 4년제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학점 대비 전공과목 비율은 학제간 28%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학점 대비 전공과목 비율은 학제간 28%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학점수로서 본 각 학제별 전공과목의 학점수는 2년제 84.3점, 3년제 95.5점, 4년제 75.2점으로 평균학점인 85학점과 편차 10학점 정도로 나타나 앞의 비율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의 경우 2년제 대비 총 이수학점이 늘어나고 전공기초에 해당하는 일부 과목들이 교양으로 구성된 점, 3년제의 경우 근래에는 전문학과와 학

사학위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공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 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학제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과목분류 항목별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계열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디자인이론 관련과목의 경우 평균 비중치 13%이며 2년제와 3년제 대학에서는 계열에 관계없이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4년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생활과학계열에서는 비중치 26%로 계열내 교과과정 구성비에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②디자인기술 항목은 평균 비중치 8%이며 4년제에서 계열간 큰 편차를 보여 4년제 디자인계열의 경우 4%로 평균보다 매우 낮았으나 공학계열의 경우는 1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치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설비 과목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③실내구성요소 관련과목은 평균 비중치 14.3%로 학제에 상관없이 디자인계열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디자인계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④기초실기 관련과목은 평균 비중치 14.9%로 계열적 편차가 크지 않은 항목이나 중분류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여 2년제는 표현기법과목, 3년제는 제도과목, 4년제는 조형과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⑤전공실기 관련과목은 평균 비중치 1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항목이다. 그러나 4년제에서는 디자인계열이 25%, 공학계열이 30%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생활과학계열에서는 16%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전공실기 관련 과목에서 4년제 대학의 계열별 교과과정 특성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심리 및 행태 관련과목은 2.4%의 가장 낮은 개설 비중을 보였으며 학제간의 편차도 거의 없었으나 4년제 건축·공학계열에서 5%의 비중치를 보여 인간공학, 환경심리 및 행태 과목들에 대한 개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⑦디자인 경영 관련과목은 평균 비중치 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년제와 3년제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4년제에서도 현장실습과 인턴십, 실무 과목들이 개설되고는 있으나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 관련 강좌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겠다.

⑧실내디자인역사 관련과목은 평균 4.1%의 비중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개설 비중을 보였다. 특히 2년제 평균은 1%로 매우 낮으며 한국디자인사 과목은 전혀 개설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4년제 생활과학계열에서는 실내디자인사, 한국디자인사, 미술사 과목들이 모두 개설되어 개설 비중이 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⑨디지털디자인 관련과목은 평균 17.4%로 전공실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년제에서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년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CAD과목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년제 디자인계열에서는 중분류의 디지털디자인 과목들이 CAD과목보다 높게 나타나 디자인계열의 특성을 보이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⑩커뮤니케이션 관련과목은 평균 비중치 7%로 학제간 편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중분류 과목구성면에서는 모든 계열들에서 세미나/워크샵 과목들이 두드러지는 반면 프레젠테이션 관련 과목들의 개설은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학제의 구조와 계열에 따라 교과과정 구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학제와 계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과과목의 구성은 실내디자인 영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공통된 교육 프로그램과 각 계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생활환경(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디자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의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개선 방향은 현재 미국의 실내디자인 교육인증제도를 운용하는 CIDA(Council for Interior Design Accreditation)의 전문인증기준이 다양한 학문적 조합들의 생성을 권장하고 있듯이 실내디자인학이 요구하는 전문성(정체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각 계열별 학문적 특성을 접목시킨 형태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적절한 조화를 기본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개설된 2,792개의 전공과목들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각 대학의 해당 학과들의 소속계열과 학과명 또는 학위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향후 실내디자인 분야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THE INTERIOR DESIGN PROFESSION: FACTS & FIGURES, ASID, 2012
2. 서수경,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3호, 2010
3. 이동원 외 2인, 전문대학의 학제변화에 따른 실내디자인 교육 과정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59호, 2006
4. 신경주,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교육현황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5. 박혜숙 외 4인, 실내디자인 교육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5호, 2002

[논문접수 : 2012. 08. 30]

[1차 심사 : 2012. 09. 20]

[게재확정 : 2012. 10. 12]